

第10回 科總定期總會 盛了

74年度決算·新年豫算·定款一部改正通過



총회장의 모습

第 10 回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 定期總會가 2月 27日 市內 城東區 驛三洞 「科學技術會館」 3層 講堂에서 內外 貴賓들과 80餘 所屬團體 會員들이 參席한 가운데 盛大히 舉行되었다.

金允基 會長은 이날 開會辭를 통해 「科學人의 總和된 叡智로서 當面한 不況을 克服하고 科學技術人의 技術奉仕 活動으로 豐饒한 來日을 期約하자」고 強調하였다.

金會長은 會員들의 協助와 呼應으로 74年度 事業을 無難히 成就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全國 9 個道에서 活潑히 進行되고 있는 새마을 技術奉仕 活動에 모든 會員들이 自進 參與하여 農·漁村의 近代化와 所得增大 事業에 더욱 奮發해 줄 것」을 당부했다.

崔亨燮 科學技術處長官은 致辭<李昌錫次官代讀>에서 「科技總聯은 韓國科學技術人들의 求心體로 發展하여왔다」고 致賀하고 「한 나라의 科學技術이 發展하기 爲해선 科學技術界의 自發

的인 參與가 무엇보다 重要하다」고 말했다. 崔長官은 科學技術을 抵邊擴大하여 普及함으로써 國家經濟 發展에 크게 이바지 해 줄것을 당부하고 「80年代에는 重化學工業을 主軸으로 하는 高度産業 構造의 建設과 이를 뒷바침할 수 있는 技術 革新의 深化 加速化가 이룩 될것으로 確信한다」고 말했다. 崔長官은 또 「科技總聯은 우리나라 科學技術 潜在力을 動員 組織化하여 이를 國家發展에 寄與할 수 있도록 하는 科學技術界의 核心體로서 自體能力 培養에 加一層 努力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總會는 會順에 따라 74年度 經過報告에 이어 事業實績 報告가 있었고 趙成虎 監事의 監查報告가 있는 다음 決算報告가 있었는데 74年度 事業報告와 決算報告를 滿場一致로 通過시켰다.

그리고 75年度 事業計劃 및 豫算案을 異議없이 審議通過시키고 現 理事 27名을 33名으로 增員하는 改正案을 審議 通過시켰다.

이날 總會가 끝난 다음 白永勳 博士의 「不況 打開과 技術革新」 金演昇先生 (韓國石油産業開發센터 常務)의 「消費國과 產油國의 對話」라는 演題의 記念講演이 있었으며 反共映畫의 上映에 이어 조출한 小宴이 있었다.